



제목	Warriors of Love: Rumi's Odes to Shams of Tabriz
발행언어	영어
발행처	Watkins Publishing
발행일	2017. 9. 19.
저자	Rumi James Cowan
출판도시	London
페이지수	224
ISBN 또는 ISSN	978-1786780294

#### 내용 요약

이 책의 저자 제임스 코완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잘 팔리는 루미의 시 중에서 샴스에게 바치는 가장 신성하고 신비한 사랑의 시 49편을 골라 새로운 관점에서 소개하고 해석하였다. 이 책에서 코완은 제법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루미와 샴스를 차례로 소개한다. 그리고 “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취했고 내 손은 떨립니다. 나는 취했습니다.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. (Your love has made me drunk, my hands are trembling. I am intoxicated. I don't know what I'm doing.)”라는 말로 독자가 루미와 샴스 관계를 짐작할 수 있도록 포문을 연다. 루미와 샴스가 영혼의 동반자임이 분명하고, 루미가 샴스를 통해 신과 합일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. 하지만 루미와 샴스의 관계를 세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학술적인 자료와 근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. 따라서 샴스에게 바치는 루미의 사랑 시로 구성된 이 시집은 루미와 샴스의 ‘연인’ 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.

1244년 60세가량의 한 사나이가 30대 중반인 루미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. 그때까지 루미는 터키 수피즘의 본산인 콘야에서 신학자, 교육자, 지식인으로서 후학 양성과 교리 전수에 전념하고 있었다. 하지만 예기치 않게 샴스가 콘야에 등장하여 루미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, 그때까지 루미를 지탱하고 있던 삶의 기반이 총체적으로 흔들렸고 삶의 근간이 뿌리째 뽑혔는데, 그 이유는 샴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경직되어 있었던 루미의 영혼과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. 이런 맥락에서 루미와 샴스는 투사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‘사랑의 전사들’이다. 친구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곧 신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어떠한 형태를 띠더라도 이들의 사랑은 천상의 사랑과 맞닿아 있다. 루미와 샴스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.